범어사 '선명상축제' 웰니스 플랫폼 열다

AI 진단 맞춤형 '마음처방전' 체험
선명상 체험과 야외 서핑 요가도
클래식 어우러진 산사음악회 '인기'
석산 스님 "시민들의 마음 평안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 가 9월 5일 범어사 선문화관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핑 보드 위에서 눈을 감고 요가 명상을 체험하는 시민들.

"남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달려온 사람."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인공지능(AI)의 진단명이다. 기자가 '자존감'이라는 고민과 '나답게 살고 싶어서'라는 핵심 동기를 입력하자 AI는 매일 5분 호흡 명상과 페퍼민트티, 편백 인센스를 처방했다. 진단을 받는 '마음처방소' 부스에서 진행된 체험이다. 스마트폰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AI가 개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명상법과 향, 차를 각각 추천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기와 명상을 결합해 현대인에게 맞춤형 웰니스(Wellness)를 제공하는 '2026 선명상축제 부산 범어사(금정산 BEO 선명상 힐링페스타)'가 9월 5일 선문화관 일대에서 열렸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범어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종교적 색채를 덜고, 시민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치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마음처방소' 체험은 4단계로 이어졌다. 스마트폰으로 AI가 고민과 동기를 진단하는 단계에 이어, 진단 결과에 맞춰 명상법을 제공받는 '마음약국', 감정을 비우는 '마음비움터', 일상 속 화두를 세우는 '나만의 화두 찾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별 고민과 동기에 따라 처방 내용이 각기 다르게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진단 결과지를 받아 부스별로 이동하며 4단계를 순서대로 체험했다.

이날 범어사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세부 명상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됐다. '슬리핑 소리명상'은 싱잉볼과 명상 악기가 만들어내는 공명 속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심신을 이완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지원 스님의 지도로 '좌종 소리선명상'도 진행됐다. 파동과 공명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운데, 소리가 사라지는 여백을 관찰하며 본래의 나를 인지하는 체험이 이뤄졌다.

신체와 미각을 활용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일상의 긴장을 푸는 '테라무브', 사찰음식 재료를 활용해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푸드테라피' 및 식(食)명상이 운영됐다. 야외에서는 숲길 걷기 명상, 선(禪) 민화 체험, 보태니컬 아트 등 자연과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당초 광안리 해변에서 예정됐던 '일출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명상'은 강풍으로 인해 취소됐으나, 서핑 보드를 범어사 경내 야외 무대로 옮겨와 산속에서 즐기는 '야외 서핑 요가'로 대체 운영하며 기상 악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

주간 명상 체험이 마무리된 후, 야외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악회 '마음이 머무는 밤(Mindfulness Concert)'이 진행됐다. 법문과 음악, 침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 행사는 평화, 감사, 환희, 희망이라는 4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됐다.

범어사 선문화관장 석산 스님은 사찰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산 스님은 "이번 축제는 부산 지역 명상 지도사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기획됐으며 소외된 이웃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악화라는 위기를 산사 요가라는 기회로 바꾼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통하듯 세상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수행·예술 공간 '반야원' 준공

울산 석남사, 9월 6일 준공식
"수행 · 명상 · 예술 향유 공간"



울산 석남사는 9월 6일 대중을 위한 수행공간이자 문화공간인 '반야원'을 준공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비구니 선 수행의 맥을 이어온 울산 석남사가 부처님의 지혜와 예술의 향기를 일반 대중과 나누는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열었다.

울산 석남사(주지 천조 스님)는 9월 6일 반야원 준공식을 봉행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수행과 명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수행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반야원 건립은 일반인을 위한 수행공간과 지역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려는 석남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됐다. 2023년 3월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7월 21일 준공했다.

반야원은 대지면적 2290㎡, 연건축면적 533.22㎡, 지상 2층 규모로 체험실과 수행관, 휴게실 등을 갖췄다. 총사업비는 35억2000만원으로 국비 30%, 울산시비 30%, 울주군비 30%가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석남사가 부담했다.

석남사는 반야원을 불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마음공부 도량'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지 천조 스님은 "반야원은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보다 많은 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야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총무국장 진응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야원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수행의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반야원 개원은 석남사의 천년 수행 전통 위에 발전적인 도전과 지혜를 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많은 울산시민과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울산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61돌 대불련 부산지부 "행동하는 청년불자 다짐"

9월 6일, 범어사서 기념법회
"청년 위한 따뜻한 공동체 될 것"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 이하 대불련 부산지부)가 창립 61주년을 맞아 행동하고 실천하는 청년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9월 6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 61주년 기념법회 및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1965년 창립 이래 부산 지역 대학생 전법의 명맥을 이어온 부산지부의 61주년을 축하하고, 새 학기를 맞이한 청년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범어사 사회국장 법진 스님(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은 "범어사 사중에서도 대불련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선배 동문들을 향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든든한 지지와 응원으로 후배들이 어엿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희철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환영사에서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때"라며 "대불련이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녹색불사 "버려지는 물건도 순환하면 자원"

9월 7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서
신문지 봉투 · 보자기 재활용 시연



부산지역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가 도심 속 환경 실천의 모범을 제시했다.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는 9월 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주최로 자원순환과 대기질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품 교환 마켓, 플라스틱 장난감 순환작품 전시 등 15개의 다채로운 환경 체험 부스가 녹음광장 일대에서 운영됐다.

지난해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한 에코백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던 도림사는 올해도 부스 운영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에는 쓰지 않는 보자기를 간편하게 묶어 장바구니로 활용하는 방법과 다 쓴 신문지를 접어 참기름병 등을 담는 친환경 봉투 만들기를 시연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며 '순환'의 가치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했다.

정찬 스님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도 순환 단계를 거치면 다시 자원이 된다"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원순환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행사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의 참모습' 강좌

반야불교문화硏, 10월10일 개강
통도사 반야암서 총 6주간 진행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대종사)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2026년 가을철 산사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주제는 '한국불교의 표정들-한국불교의 특징에 관한 담론들'이다. 종교로서 불교가 가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관계를 조명하고, '무엇이 한국불교를 한국불교답게 만들어 왔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전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오늘날 불자들의 신행 생활을 규정하는 역사적·문화적 토양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현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0월 10일 조기룡 동국대 교수의 '한국 조계종의 조직구성과 한국불교 종단의 특징' △10월 17일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의 '한국사찰의 공간구성과 한국불교의 특징' △10월 24일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한국 승가교육의 현실과 한국불교의 특징'이 전반부를 장식한다. 이어 후반부에는 △10월 31일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통불교적 전통과 한국불교의 특징' △11월 7일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민간신앙의 포용과 한국불교의 특징' △11월 14일 김종희 문화공간 빈빈 대표의 '삼국유사, 불교적 상상력과 한국적 상상력' 강연이 차례로 이어진다. 010-8738-30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이산 스님 교육 원력, 장학불사로 잇다

9월 3일, 명정학교장학재단 출범
금정중에 장학금 5000만원 전달



일제강점기에 명정학교와 보성고보를 지켜내며 민족교육에 힘쓴 오이산 스님의 교육 원력이 장학사업으로 이어진다.

재단법인 명정학교장학재단(이사장 강길주)은 9월 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출범 법요식을 봉행했다.

강길주 이사장은 그간 외조부인 오이산 스님의 외조부의 행적과 교육사상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복원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선대의 교육 원력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오늘날 장학사업으로 계승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강길주 이사장은 "장학금 지원을 넘어 불교문화 연구와 학술 진흥, 청소년 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재단의 첫 목적사업으로 금정중학교에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부산·경남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교 및 인문학 분야 학술단체에도 매년 500만원 이상의 학술진흥기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판각학교 5기 개강

9월 6일, 5기 121명 입학
혜일 스님 "전통판각 계승"

팔만대장경을 조성한 선조들의 원력과 전통판각법을 계승하기 위한 다섯 번째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은 9월 6일 해인사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을 위한 전통판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 제5기 교육과정에는 토요반 55명, 일요반 66명 등 121명이 등록했다.

이사장 혜일 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향하며 제5기 교육의 원만한 성취를 발원했다. 혜일 스님은 "이번 교육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조성했던 전통기술과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 '사람'을 통해 계승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팔만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은 고불문에서 "한 자 한 자를 마음에 간직하듯 팔만대장경 전통 판각 기법을 배우고 익히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유포하고자 원을 세웠다"며 교육생들의 원만한 교육 성취를 발원했다.

교육은 김승환 각자장의 지도로 총 20주간 진행된다. 토요일반은 9월 12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일요일반은 9월 13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매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교육대·화엄승가회, 생명존중 캠페인

9월 6일, 부산 초읍 자유회관서
제9회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개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 이하 부불대)과 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는 9월 6일 부산 초읍 자유회관에서 '제9회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자살·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및 힐링치유 경로효(孝) 대잔치'를 개최했다.

범혜 스님은 대회사에서 "자살은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마중하는 시작일 뿐"이라며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불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당부했다.

화엄승가회 고문 자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살은 자신뿐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불행과 괴로움을 준다"며 생명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엄승가회장 대각 스님도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 보행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